

Better PEOPLE Better WORLD



표지인물 문정인 동북아시아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정인 동북아시아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경제불황이나 세계적 이주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사회의 비판적 심리구조를 버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실용주의 사고를 가지면 오히려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문 위원장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외교를 이루어 우리의 동북아시아 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2005년도에는 경제와 번영을 위한 사업과 함께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구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문 위원장을 만나 동북아시아를 위한 위원회의 구상과 이를 위한 우리의 외교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 10~13면)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2005

January

1

3 머릿글

이건호 농협대학 학장

4 월프로그램

1월 프로그램

6 화제의 강연

이성용 베인&컴퍼니코리아 파트너

10 커버스토리

문정인 동북아시아개발위원회 위원장

14 나의 경영이야기

김은숙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회장

16 중국 길림성 CEO 한국연수

19 발행인편지

20 세상을 보는 눈

송인갑 (주)우향알앤디 사장

22 회원&연구원소식

26 수필

전용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8 리더십이야기

30 이시형 칼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KYOBO
교보문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 1544-1900

광화문점 1544-1900 강남점 1544-1900 부산점 (051)806-3501 대구점 (053)425-3501
인천점 (032)455-1000 대전점 (042)222-7891 부천점 (032)663-3501 성남점 (031)752-1323

한국농업의 미래와 젊은이의 도전

최근 한국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유수 경제예측 전문기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2005년도 경기전망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성장체제의 기조적 정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제적 고통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노동인력은 주로 2차, 3차 산업 분야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의 취업은 기피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농업부문에 대한 이러한 외면 현상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소득 불안정과 농가소득 증가의 둔화, 농촌 생활환경과 복지기반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이것은 젊은이들과 여성의 농촌정주(農村定住)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60~70년대 수출주력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한때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기술혁신과 마케팅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했듯이 한국 농업도 수지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한국농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능한 젊은 인력이 비농업부문으로 급격하게 유출되었다. 이러한 농업인력의 유출은 농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타 산업부문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03년 말 현재 132만 농가중 경영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농촌에는 아이울음 소리조차 끊긴지 오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코 비관적으로 내다 볼 일은 아니다. 최근 농산물 소비패턴을 보면 소득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근년 들어 소위 웰빙(well being) 트렌드와

우리나라 고유 식생활 패턴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젊은 정예농업인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젊은 농업인들이 틈새시장을 겨냥한 생산차별화와 BT를 이용한 상품혁신으로 고소득을 올리는가 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관광농업(그린 투어)으로 농외소득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판매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e비즈를 통한 직거래를 추구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품을 브랜드화함으로써 유통혁신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품혁신, 유통혁신, 관광농업 등의 서비스혁신이 농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우수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농업혁신 노력은 우리의 기존 토지이용형 전통농업을 기술과 자본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로 GDP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농업은 결코 '밀지는 산업,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도약을 위한 첨병으로서 야망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인력의 도전을 권장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창업과정이 그렇듯이 농업의 미래를 보고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먼저 철저한 시장조사와 농업기술 습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UR협상 이후 무분별한 자금투입으로 많은 농가가 오늘날까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난관을 극복치 못하고 중도 좌절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젊은이들이 농업생산과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으로의 진출로 취업의 애로를 타개하면서 밝은 미래농업을 일구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젊은이에게는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人間**

이건호 농협대학 학장

1947년 생 / '72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 '85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 '72~'00 농협중앙회 조사부 해외협력실, 농업금융부장, 총무부장 / '00~'04 농협중앙회 상무(기획, 총무, 신용, 경제 담당) / '03~'04 양곡유통위원회 위원 / '02~현 세계농경영연구원 이사 / '03~현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 현 농협대학 학장

1
주
일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년하례회>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방향

1384회 1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한국의 2004년이 마무리되고 2005년이 열렸다. 작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였지만 결과는 역시나 힘든 한해였다. 내수경기 악화로 국민들은 지치고 그나마 안정세였던 해외수출도 급격한 환율변화가 닥치면서 기업들은 여러 차례 목표수치를 변경해야 했다.

무엇보다 고도성장을 해온 우리경제가 완만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높은 실업률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도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괄목할 만한 급성장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든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 경제상황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3~4년 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P) 2만달러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작년 1인당 GNP가 1만 4,100달러에서 올해는 1만 6,9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라면 1인당 GNP가 올해 19.8% 늘어나면서 2만달러에 빠른 속도로 다가간 한국경제가 그리 비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숫자로 보이는 성장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분명 다르겠지만 한해를 시작하는 국민들에게는 힘이 되는 소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연구원의 명예회장으로서 큰 공헌을 하고 계신 조 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초빙하여 연구원의 신년하례회를 겸해 2005년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상과대 졸업(1949)
- ▲ 美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1967)
-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1970-88)
-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90)
- ▲ 한국은행 총재(1992-93)
- ▲ 이화여대 석좌교수(1994)
- ▲ 초대 민선 서울시장(1995-97)
- ▲ 민주당, 한나라당 총재(1997)
- ▲ 제15대 국회의원(1998)
-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2001-현)
- ▲ 민족문화추진회 회장(2002-현)
- ▲ SK 사외이사(2003-현)

<상훈> 茶山 경제학상
<저서> 경제학원론,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상·하), 화폐금융론, 한국경제 개조론 외



조직문화 혁신과 버추 감성리더십 프로그램

1385회 1월 1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린다 캐벌린 포포프 버추프로젝트 창시자

조직문화란 것은 그 조직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문화는 곧 기업이라는 조직의 문화이며, 일단 형성된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기업문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야기되었다. 여러 선진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를 위시한 어두운 경제상황에서도 'Nike', 'Wal-Mart' 와 같은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1등을 지키는 비결은 '변화' 였다고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사람들에 있다고 한다.

기업문화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가슴 속 깊이 내면화하여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구성원들이 바로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975년 북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인성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기적적인 효과를 보이며 전 세계 85개국에 전파되어 학교에서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에서도 조직문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인성프로그램, 버추프로젝트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 조직심리 전문가인 린다 캐벌린 포포프 박사를 초빙하여 미덕을 연마하는 간단하고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버추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 혁신과 버추 감성리더십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 ▲ General Motors, Arthur Young International, The U.S GAO 등 유기 기업의 조직발달 자문
- ▲ 美 The Boy and Girls 클럽 인성발달 싱크탱크 멤버
- ▲ 캐나다 CTV 내셔널 뉴스 윤리위원회 자문위원
- ▲ Virtues Project Int. CEO
- 〈상훈〉 캐나다 YWCA · YWCA
- '뛰어난 여성상' (2001)
- 〈저서〉 The Sacred Moments, The Family Virtues Guide, The Virtues Project Educator's Guide



국가경영과 경영인의 법의식

1386회 1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승규 법무부 장관

지난 2004년의 최대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기업의 존폐를 가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올 한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경쟁시대에 걸맞는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재창출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성공과 존망은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그리고 인적자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과 분배, 개혁에 관한 확고한 국가정책, 대북관계 등 국가위험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노사관계 및 교육시스템의 안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또한 오랫동안 유지·번영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여 기업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유능한 인재를 내부에 확보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기업 모두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가 내부 갈등과 여러 세력에 의해 문란해지고, 기업의 법의식 또한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부도덕성으로 권력에 기대어 안정을 도모한다면 발전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은 안정된 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가든 기업든 내부의 원칙이 바로 서고 기본질서가 유지되면 제아무리 환경변화가 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검사와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작년 7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김승규 장관을 초빙하여 국가경영의 성공적 발전과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경영인의 법의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서울대 법대 졸업(1968)
- ▲ 제12회 사법시험 합격(1970)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1975-78)
- ▲ 법무부 보호과장(1988-90)
-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1992-93)
-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1995-96)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1996-97)
- ▲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1998-99)
-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2001)
- ▲ 법무부 차관(2001-02)
- ▲ 대검찰청 차장검사(2002)
-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2002-03)
- ▲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2003-04)
- 〈상훈〉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 〈저서〉 효율적인 벌과금 집행



동아출판사 창업이야기 그리고 100살에 도전하는 건강신화

1387회 1월 2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상문 동아출판사 창업주

'열정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열정과 도전, 그리고 꿈이 있는 한 삶은 쉽게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많은 원로세대들은 바로 그 열정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었다.

1945년 동아출판사를 창업해 한때 '출판황제' 로 불리었던 김상문 동아출판사 창업주도 우리사회에서 열정을 잃지 않고 일해온 원로세대 중 한사람이다. 김 회장은 구순(九旬)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도 '동서문화사' 의 명예회장으로 '상문각' 의 회장으로 출판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출판사는 김 회장이 일본 유학시절 어깨너머로 배운 '동서쇄판' 수리 기술을 발판 삼아 해방 이후 일본어 서적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출판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창업하게 되었다. 그 후 '동아전과', '완전정복시리즈' 등을 만들면서 년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85년 30권짜리 '동아인쇄대백과사전' 을 제작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그는 눈물을 머금고 평생 가꾸어온 '출판보국(出版保國)' 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런 그가 최근 <100살 자신있다>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100살에 도전하는 건강신화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평생 출판업계에 종사한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썼다는 이 책에는 그의 건강생활 90년의 생생한 체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3년 전 서울대 의대에 시신기증 서약을 하기도 한 그는 아직도 신체나이가 70대 초반인 우리 사회의 영원한 청년이라는 점이 낯설지가 않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생 출판 인생을 살아온 김상문 동아출판사 창업주를 초빙하여 그의 창업이야기와 최근 발간된 <100살 자신있다> 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100살 건강신화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 ▲ 대구사범학교 졸업(1935)
- ▲ 日 동경 흥아공학원 채광과 수료(1941)
- ▲ 동아출판사 창업(1945)
- ▲ 동아출판사 사장(1956-84)
- ▲ 동아고과서 사장(1974-84)
- ▲ 동아인쇄공업(주) 대표이사(1980-84)
- ▲ 동아출판그룹 회장(1984)
- ▲ 상문각 회장(1989-현)
- ▲ 동서문화사 명예회장(1991-현)
- 〈상훈〉 대한민국 보관 문화훈장
- 〈저서〉 출판황제 김상문,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100살 자신있다



제138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2004년 12월 9일 목요일

Korea Discount! 그 위기와 진단 및 극복방안

이성용 베인 & 컴퍼니 코리아 파트너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행이나 습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뜻에서 정한 말이다. 나는 한국의 훌륭한 회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왜 제값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어떤 이들은 값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영향이지 일하는 사람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칼을 만드는 회사는 인건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칼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칼로 유명한 독일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계를 만들 때도 스위스에서 만들면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에 있다면 30%이상 평가를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코리아브랜드가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회사들도 진출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제품을 삼성과 소니가 만들었을 때 우리는 25~30%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이것을 고치는데 20년이 걸렸다. 기업이 디스카운트 받아서 고치는 데는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격이 디스카운트되면 올리기가 무척 힘들다.

재미있는 것은 상대비교가 있고 절대비교가 있는데 절대비교에서 사람들은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초봉은 1억 정도이다. 이것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액수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며 아주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연말에 성과에 대한 고과가 들어가는데 개인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옆 사람이 1억 2,000만원을 받는 것을 보고 1억을 받는 사람은 상대비교가 들어가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착취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6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2,000만원 덜 받는다는 사실에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이



30% 디스카운트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안 내는 것 같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후에 말이 많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서 안 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을 때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룬 보고서나 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1997년에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비난하는 책과 기사들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1994년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가 1997년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오늘날의 신용카드 위기를 봐도 그렇다. 처음에는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 반대주장을 펴던 전문가나 교수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그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그때는 말을 안 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가? 우리가 IR(investor relation)이 부족하지 아니면 영어를 못해서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밑으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 중에서도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국민정서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가 없다.

당신에겐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이 있는가?

첫 번째 원인은, 리더십과 리더십 모델의 부재이다. 2년 전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리더 가운데 역할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 그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위 김구(19.5%), 2위 히딩크(16.4%), 3위 이순신(7.2%), 4위 이견희(5.4%), 5위 이재웅(5.1%), 6위 박정희(2.5%), 기타(5.1%)가 나왔다. 재미있는 것은 전부 합쳐도 100%가 안 된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8%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 5명 중 2명이 자신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일까? 오늘날 한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등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 최초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많은데 최고로 무엇을 했다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다. 많은 한국인들은 5천년 역사, 단일민족 등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강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유구한 역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여기지지 않는다. 몽골인들도 프라이드가 몹시 강하다. 칭기즈칸이 전 세계의 1/3을 정복했었다지만 지금은 별 볼일 없다. 베트남인들 역시 자만심이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이긴 나라는 베트남뿐이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역시나 별 볼일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나라로 본다. 아무리 5천년의 역사가 있더라도 현대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베트남, 몽골과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원인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신문을 들추면 온통 부정적인 기사들뿐이다. 열 번의 뉴스 중에서 한 번은 좋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언론의 관심은 스캔들을 폭로하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역할모델(role model)이 만들어지는 작업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매일 우울한 얘기만을 하니 우리 자체도 우울해지는 것 같다. 좋은 일을 한 사람, 훌륭한 CEO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즉 우리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훌륭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모델이 생기는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

세 번째 원인은, 브랜드 이미지의 부재이다. 한국의 모든 대외용



홍보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아침은 절대 고요하지 않다. 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역동적인 한국, IT한국이어야 하는데 고요한 아침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떠오르는 태양(Rising Sun)'은 적극적인 느낌을 던져 주지만 '고요한 아침'은 활기 없고 맥 빠지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또 한국에는 태권도가 있는데 어떤 외국인들은 이것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일 뿐, 고객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이해시키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태권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고 멋진 요소가 많으므로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거둘 만한 소재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원인은, 실천력의 부재이다. 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내셔널 어드바이스' 라고 해서 5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에서 할 일을 쓴 적이 있다.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의 글들을 봤는데 내용이 모두 똑같았다. 똑같은 이슈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두 이전 행정부가 약속해 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들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을 보면 변화, 관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변화의 면역이다. 변화, 변화하면서 변화를 안하는 것은 변화에 면역이 되어서 누가 변화한다고 하면 "저 사람 또 떠든다."고 말하면서 씨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써 변화에는 액션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산관리에서는 돈을 잃어도 문제가 되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가 된다. 그만큼 돈을 위험한 곳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자기 돈이 아닌 회사, 고객의 돈으로 그런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투명성을 말한다. 결과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 투명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나쁜 일이 없어서 투명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위험한 생각이다.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봐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정을 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한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도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한국의 법은 법 자체는 무지하게 높고 좋은데, 그래서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한 친구가 반 지하에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하니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출구를 만들어야 했다. 비상출구를 빌딩에는 만들지 못해서 소방법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못 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반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의 60~70%는 비상출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니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살기 힘든 나라지만 눈치가 있으면 살수 있다는 얘기를 내게 했다. 모든 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너무나 살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며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적이지 못한 전문가들

일곱 번째 원인은, 전문가의 부족이다.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3년 정도 지나면 그 효용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6년이 지나면 25%로 떨어지고, 9년이 지나면 12.5%로 떨어진다. 10년이 지나면 배웠던 것의 10% 밖에 가치가 없다. 공부만 계속되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20년 경력이 있다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1년의 경력을 20년 동안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20년 경력이 아니라 1년의 경력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내의 구매담당 20년 경력의 사람과 외국의 20년 경력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회사를 살 때 못 사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격이고, 둘째는 경영능력 부족이다. 경영능력 부족은 그 회사를 맡을 CEO를 한국에서 못 찾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 데는 한국의 CEO가 필요하다.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CEO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조이다. 두 번째 이슈가 노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온 자유투사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면 미국의 유명한 TV앵커 Tom Brokaw가 쓴 <위대한 세대>라는 책이 생각난다. 여기서 위대한 세대란 미국의 베이비붐 직전세대로,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겪어낸 사람들을 말한다. 이 책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은 그 세대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향유하는 자유의 토대와 씨앗을 그들이 제공하고 재공했기 때문이다.

그들 세계는 희망이랄 게 없었지만 그들은 언젠가 미국이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자신과 지도자들에게 가졌던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 미국이 경제공황과 두 차례의 대전에서 벗어나 인류역사상 가장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현대판 로마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풍족한 환경을 일컫는 비유이다. 위대한 세대 덕분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미국의 그 어느 세대보다도 부유하고 운택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가장 장수하고 있다.

나는 한국의 위대한 세대로 6.25 전쟁을 겪어낸 세대를 꼽고 싶다. 한국의 위대한 세대들은 대부분 1960~70년대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1980년대에 은퇴했다. 그 세월동안 그들은 이 나라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털고 일어나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웨스트포인트 재하 시절 그곳의 도서관에는 군사관련 서적이 가득했는데 한국의 전쟁문서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서적과 기록들은 당시 한국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입장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었다. 그 문헌들을 뒤져보면 한국의 독립 운동가들이 펼친 군사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조금 더 들인다면 1900년 초에 미국에 당도한 한 무리의 한국인들에 관한 기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온 자유투사들'로 소개된 그들의 기록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그들은 이승만보다 최소한 반세기 가량을 앞서 살았으며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그들이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채로 정부 관리들과 함께 회의장에 나타난 사진이 담겨져 있었다.

아마 당시의 미국인들은 한국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한국을 일본, 중국과 잘 구분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기사는 한국에서 온 이 밀사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

고서, 그들의 방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 그들은 몇 주 가량이나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일행 가운데 한 두 명만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이었다. 기사는 그들에게 받은 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의 생김새와 복장은 매우 낮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의지가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자기 나라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만약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이들과 같다면 한국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돌아갈 여비가 없어서 몇 주 동안이나 미국에 체류하다가 몇몇 선교사들이 모금해준 돈으로 간신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기사는 내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나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로 모여들던 것과는 달리, 우리 가족은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도시에 정착했다. 아마 반경 50마일 이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한국인 가정이었을 것이다. 자그마한 한인교회 하나를 제외하고는 한국 상점이나 기타 한국관련 활동들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에 진학하지 전까지 나는 미국이라는 세계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었을 뿐, 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의 그 기사를 읽는 동안, 독립과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선조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나는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 그때 받은 감동은 웨스트포인트에서 훈련받은 의미와 영애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 시대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9.11테러 속에서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나선 미국인들보다 더 훨씬 위대한 것이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세 개의 대륙을 누비면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 기사는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늘 마음깊이 한국이 성공하기를 염원했다. 미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나는 한국축구를 응원했고, 2002년 월드컵의 벽찬 감동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비록 내가 한국영토 밖에서 30년 이상을 보냈지만 나의 마음만은 늘 한국과 함께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옛날 도서관에서 읽었던 기사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시대 한국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고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화를 상대로 수도 없이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전투의 성패 90%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달려있다. **人間**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준비하는

문정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문정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은 이 말에 빗대어 한국사회의 심리구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의 경제불황이나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실용주의 사고를 가지면 오히려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제안한다.

동북아시아대위원회는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로 출범해 경제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으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뜻에 따라 2004년 6월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개편과 함께 취임한 문 위원장은 오랜 기간 학계에 몸담아왔던 인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꼽는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만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외교를 이루어 우리의 동북아시아대 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는 경제와 번영을 위한 사업들과 함께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가시화 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는 문정인 위원장을 만나 동북아시아대를 위한 위원회의 구상과 함께 이를 위한 우리의 외교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거쳐 동북아시아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세 가지의 큰 국정과제를 설정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첫째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둘째는 국토의 균형발전, 셋째는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아대 구현입니다. 동북아시아대위원회는 이 세 가지 국정과제 중

에서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아대 구현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현직 장관 11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정책과제를 설정할 것인가와 이를 기획해서 정책화시키고 정책화시킨 것을 해당 행정 부서에서 실행해나가면 또 그것을 점검해서 대통령께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정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

1951년 생 / '77 연세대 철학과 졸업 / '81~84 美 매릴랜드대 정치학 석·박사 / '85~94 美 캔터키대 정치과 부교수 / '94~현 연세대 정외과 교수 / '95~현 Asia-Pacific Studies Institute, 듀크대 겸임교수 / '99~00 연세대 통일연구원 원장 / '01~'03 美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03~현 연세대 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 현 세계국제정치학연맹 프로그램 위원장, 제주평화포럼 조직위원장, 동아시아포럼(EAF) 조직위원장 외



▶ 지난 10월 1일 동북아시아위원회는 제주에서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략기획사업이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30년을 보면서 동북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동북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안보전략과 대외경제전략이 필요한가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업은 평화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을 강화시켜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에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둘째는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번영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허브를 만드는 사업과 물류부분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 물류거점을 만드는 사업,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동북아공동체협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의 에너지공급협력사업,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을 통한 시베리아 횡단, 중국횡단 철도건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문정인 위원장이 지난 10월 25일 열린 2004년 협동연구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지난해 6월에 취임하셨는데요. 그 동안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하셨는지요. 이와 함께 2004년도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05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저희 위원회가 그 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은 경제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준비작업의 단계였다고 할 수 있죠. 2004년을 되돌아보면 금융부분에서는 한국투자공사법을 만들었고, 금융거점과 관련해서는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기

본들을 마련했으며,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규제철폐에 관한 기본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물류거점과 관련해서도 인천, 광양, 부산, 제주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제나 번영을 위한 공동체협력사업들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전략기획 부분은 새롭게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좀 더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정인 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차 광양만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평화구상의 핵심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사는 개성공단 사업과 육로를 통한 대북 사업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동북아 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금융거점으로 만들고 개성은 생산거점으로 인천은 물류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황금삼각구도가 형성되면서 세계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을 동북아 최대의 경제수도로 만드는데 개성이 생산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성공단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군사간장이 그만큼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 군사대립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공존과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부시 집권2기 시대를 열어 끝이 났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개선도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부시가 재선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비관론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부시 2기에는 재선이 없어요. 결국 부시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들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이란, 아프간 문제 등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핵문제가 부시 대통령을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호기의 외교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부시 대통령이 조금만 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외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조금이라도 갖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북핵 해결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난번 산티아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만나 북핵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밝혔듯이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동북아 구상도 잘 풀릴 것으로 봐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유럽순방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국내 일부의 여론은 갈등요인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분명한 구심점이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력행동도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고, 대북 고립봉쇄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고립하고 봉쇄를 해서 체제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정통성도 강화되고 북한 군부의 위상도 강화되어 체제의 내구성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를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과 협상을 해보고 협상의 조건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설득할만한 것임에도 북한이 거부한다면 우리도 미국 등과 동조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기본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북한이 핵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반전 반핵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 자리잡는 과정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동북아의 어려운 문제가 북핵문제와 양안문제인데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 일본의 강경파들은 패권적 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해요. 이런 견제심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위험론입니다. 그런데 중국위험론에 대해 중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면서 다같이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구상은 포괄적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깔아놓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끌어들이 한·미·일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인 중국, 러시아, 북한도 더불어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 이후에 에너지협력과 항공 우주협력 부문에서는 가시화가 되고 있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협력도 다원화시켜 나가면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국을 참여시키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5일 중국개혁개방포럼의 Zheng Bijian 주석을 방문해 한중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1333회 경영자 연구회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에 관해서, 7월 제주 섬머포럼에서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올 한 해 한반도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올바른 외교 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회에 안보, 외교와 관련된 담론을 보면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다’라는 의견, ‘동북아의 미래 패권국은 중국이다. 중국에 편승하자’라는 의견, ‘해양국가인 일본과 제휴를 맺자’라는 의견, ‘핵을 갖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세력국가로 자리를 잡자. 그래서 스스로 동북아시아의 균형역할을 하자’라는 의견,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라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절충하고 포합시켜 나가는 협력체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특정 국가에 편승했을 때 오는 반작용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더욱 위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외교, 중용의 외교, 다자외교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생존의 공간을 넓혀가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인간개발'에 대한 소명으로 걸어진 길 위에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특히 '글로벌 코리언스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동포망 연계 구축사업을 해외동포재단을 통해 관 주도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상대회도 열고 해외동포들 지도자 회의도 열어왔죠. 그런데 하나의 공통 테마를 가지고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해서 한국인의 저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의 노력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말이 통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피를 나눈 민족끼리 모여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서 오랜 기간 학계에 몸담아오셨습니다. 평소 정치학자로서 지니고 있는 신조나 인생관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비관주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좀 더 낙관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황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나 경제도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낙관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봐요. 한국사회의 총체적 심리구조를 봤을 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두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실용주의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처럼 많은 일을 하는 기관도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에 조찬강연이라고 하는 모델도 연구원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영역을 넓힌 지방자치아카데미도 장성군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경영자들의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동북아, 동북아에서 글로벌로 나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장 회장님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특히 민간 단체로써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30년 역사를 살펴보면 존경심이 앞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의 새로운 30년 역사에도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마이애셋자산운용 임직원 단합대회 / 김은숙 회장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

나의 조그마한 경영이야기

김은숙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회장

한국에서 여성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금융업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로 그 동안 증권사, 투신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 대부분이 남성들의 독무대였다. 이로 인해 경영을 하면서 나에게 는 인맥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

나를 유지시켜 주는 힘은 믿음

1987년 자산운용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나름대로 전문인 두 사람과 같이 시작하여 도움도 받으면서 경영수업도 하고, 지금은 예순이 넘는 나이에 경영대학원에 다니면서 흐트러진 지식을 체계화하기도 하여 이제 겨우 자산운용사 경영에 대하여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다양한 업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전공한 덕분에 주어진 창의적인 사고는 기업과 주가물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예민함이 적중할 때도 있었다. 또한 많은 정보의 필요성과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여러 단체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성공한 지인들을 만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념 등을 듣기도 하였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영화나 연극, 음악회 등을 통해 우선 생각을 바꾸고, 가끔은 차를 몰고 진도나 완도까지 가서 자연 속에 자기를 버려 두고 머리를 식히기도 한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 문제에 대한 답이 떠오르면 급히 메모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한다. 항상 하나님은

김은숙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회장

1942년 생 / '65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 / '02~'현 고려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 과정 / '76 美 GW Grace 회장 / '77 美 Golden Bridge Inc 회장 / '82 Duke & Grace, Inc 회장 / '87 (주)월드프라자 회장 / '00~'현 월드투자파트너즈(주) 회장 / '01~'현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회장



▶ 영하펀드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한 김은숙 회장 / 직원들과 함께한 등산 단합대회 / 중국 북경 투자와 관련해 회의 중인 김은숙 회장

내편에서 손을 들어준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나에게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뒀던 나의 28년 동안의 경영이력에서 아직도 나를 유지 시켜주는 원동력은 나의 믿음이다.

기업경영은 파도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처음 화려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겪은 많은 실패와 좌절감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까워 질 수 없었던 남성 기업인들과의 관계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도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는 주말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자주 찾아갔고 돌아올 때는 평온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어려움에 대해 도리어 사랑하게 되고 도사 같은 여유있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인성, 너그름이라 할까. 폭넓은 이해력이라 할까. 아랫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 오랜 경영 경험에서 얻어진 내내력이라고도 할까? 기업은 항상 잘되지만 하는 법은 없다. 꼭 파도와 같은 Wave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때 가져야 하는 것은 기다림과 조심성과 내 의지와의 싸움이었다. 가정보다 우선해야 했고 집중적인 사고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했다. 절대 성공만도 없고, 실패만도 없고 결코 줄임이 없는 것이 기업경영이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기업경영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다가올 새해에 대해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진다.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고, 춤추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날로 부상하는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에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중국시장 겨냥할 것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문이라는 공통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무기이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공부를 핑계로 북경대학에 가서 중국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마이애셋이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이나 펀드를 중국 본토에 상륙시켜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중국시장을 겨냥해 보고자 한다. 나에게에는 나이가 핸디캡이 아니라는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격동기만이 기업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뛰려고 한다. 유태인들의 교훈인 '깜깜한 하나의 큰방에 하나의 바늘구멍이 바로 돈'이라는 그 바늘구멍을 찾는 것이 기업경영의 성공이 아닐까?

많은 중국 유학생과 기업인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배우고 있고 한류 열풍으로 우리의 문화에 흥미를 가질 때 무엇인가 내가 중국과의 기업이 아닌 다른 연고로 접근하여 '판시'를 만들고 틈새시장의 정확성을 찾아내어 내가 설 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실패를 거둬야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면 절대 성공이라는 수치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경영의 이익은 직원들의 몫

내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주 제도와 항상 정신적인 무리를 하고 있는 펀드 운영팀에게 여름 1개월과 겨울 1개월의 휴가를 주고 스텐포드나 미국의 금융회사로 연수를 보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펀드매니저가 수년 연속 베스트로 운영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주식을 적정시기에 사기도 어렵지만 파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는가? 작으나마 2년 연속 흑자기록을 해준 사장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2005년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노력으로 흑자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人間**



▶ 김은숙 회장과 함께한 마이애셋 임직원들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한국연수프로그램

한국의 경제·경영을
이해하는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며

본 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 나아가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제포럼 개최, Global Koreans Network 구축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화와 국제협력에 이룩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국제관계를 모색하고자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교류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원내 소모임인 차이나 클럽 발족, 한러친선협회 재발족, 제1회 한일국제노동포럼 개최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중한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공동으로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와 선진 경영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기업인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실제적인 양국간 교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2005년 신년호에서는 특집으로 한달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첫째 주 (11월 28일~12월 5일)



▶ 11월 29일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본 일정에 들어감



▶ 12월 1일 삼성전자 방문

지난 11월 28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방문단(단장 왕운천(王云泉)) 24명은 LG 인화원에 한 달간의 여정을 풀었다. 이튿날인 11월 29일부터는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의 “지도자와 인간경영”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GE코리아 이채욱 사장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 서울대 송병락 교수의 “한국경제의 성장과 전략”, (주)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옥 회장의 “코리아나화장품의 성공사례” 등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12월 1일에는 삼성전자 허영호 센터장의 영접으로 공장견학이 이루어져 세계 일류의 한국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11월 30일 이채욱 GE코리아 사장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 강연

둘째 주 (12월 6일~12월 12일)

한 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내최고의 기업인 (주)LG화학, LG-Caltex정유, POSCO, 현대자동차 등을 견학하였다. 이 기간 중 대전·충남지역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한금태), 경기도 이천상공회의소(회장 신현익) 및 회원사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져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말에는 삼성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만찬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 12월 9일 현대자동차 방문



▶ 12월 9일 포스코 방문



▶ 12월 11일 삼성 에버랜드 방문

셋째 주 (12월 13일~12월 19일)



▶ 12월 16일 웅진식품 공장 방문

셋째 주에는 삼익LMS(주) 심갑보 부회장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주)농협유통 이상영 사장의 “농산물 유통개혁방안”, 새마을연수원 정갑진 부원장의 “한국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활용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한국 경제와 경영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웅진식품(주)과 유한김벌리(주) 공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선진화된 시설 및 경영기법을 학습했고, (주)현대홈쇼핑 견학을 통해 발전된 한국의 유통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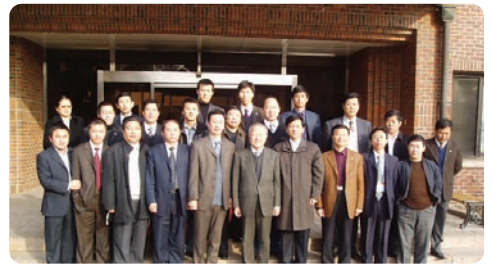
▶ 12월 18일 (주)현대홈쇼핑 방문

넷째 주 (12월 20일~12월 28일)



▶ 12월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주최의 중소기업사장간담회

12월 22일에는 본 연구원 조 순 명예회장의 “한·중의 경제관계”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후 김익수 고려대 교수의 “신환경하의 WIN/WIN형 한중 경제협력 방안”, 김영광 중국대사관 참사의 “바람직한 중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져 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제시하였다.



▶ 12월 22일 조 순 본 연구원 명예회장의 강연 후 기념촬영

한편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한중간 중소기업사장 간담회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12월 23일에는 중국 방문단이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한 후 연구원 회원사들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12월 23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석후 연구원 회원사들과 간담회

12월 25일, 서울 시내에서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중국 방문단 일행은 이후 웅진식품(주) 조운호 사장의 “CEO리더십과 웅진식품 마케팅 성공 사례”, 현대자동차 최순철 상무의 “현대자동차의 세계진출 현황과 전략”, 메타브랜딩 박항기 사장의 “브랜드 전략” 등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뜻깊은 한국연수를 마무리한 뒤 12월 28일 장춘으로 출국하였다.

* 중국 길림성 국유기업 CEO 한국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사 및 강사님 그리고 참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강의 및 기업체 방문 일정

일 자	강의주제 및 방문 기업체	강 사
11월 28일(일)	한국 도착	
11월 29일(월)	지도자와 인간경영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원손 고려대 교수
11월 30일(화)	끝없는 변화와 혁신 e-business 전략 이해	이재욱 GE코리아 사장 박기한 LG-CNS 부장
12월 1일(수)	삼성전자 견학 삼성전자 솔루션 마케팅	차원용 아스팩비즈니스 소장
12월 2일(목)	한국경제의 성장과 전략 LG전자의 국제화 전략	송병락 서울대 교수 정수연 ILG 대표
12월 3일(금)	통합합리화 활동 코리아나화장품 성공사례	유건희 LG전자 고문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12월 6일(월)	LG화학기술원 견학 두양종합건설 모델하우스 견학 대전·충남지역 경총과의 교류	
12월 7일(화)	LG화학 견학	
12월 8일(수)	LG Caltex 견학	
12월 9일(목)	POSCO 견학 현대자동차 견학	
12월 10일(금)	한중교역투자 현황과 협력방안 이천상공회의소 방문 및 교류	황규광 한국무역협회 중국팀 팀장
12월 11일(토)	21세기 중소기업의 성공경영전략 삼성 에버랜드 견학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실장
12월 13일(월)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 Work-out Session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장 하용호 LG인화원 부장
12월 14일(화)	북경올림픽과 국가전략 전사적 고객만족경영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이승래 아이템플연수원 사장
12월 15일(수)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농산물 유통개척 방안	심갑보 삼익LMS(주) 부회장 이상영 농협유통 사장
12월 16일(목)	웅진식품(주) 견학 한국기업의 중국진출현황 및 전략	정상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2월 17일(금)	새마을 연수원 견학 및 강의 유한킴벌리 견학 및 강의	정갑진 새마을연수원 부원장 김명호 유한킴벌리 공장장
12월 18일(토)	(주)현대홈쇼핑 견학	
12월 20일(월)	마케팅 관리 : Overview 중소기업간담회, 강연 및 교류	박홍수 연세대 교수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12월 21일(화)	High Performing Leader 21세기 마케팅 전략	박철수 F&G 소장 이상규 휴먼테크마케팅연구원장
12월 22일(수)	한중의 경제관계 신환경하의 WIN/WIN형 한중경제협력방안	조 순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본 연구원 명예회장 김익수 고려대 교수
12월 23일(목)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석 및 회원사 교류 CEO리더십과 웅진식품 마케팅 성공사례	조운호 웅진식품(주) 사장
12월 27일(월)	브랜드 전략	박항기 메타브랜드 사장
12월 28일(화)	중국 출국	

중국 국유기업 CEO 리스트

번호	이름	회사명	직함	주요업종/생산품
1	易宏偉 Yi hongwei	吉林省信恒開發公司	董事長	고속도로 건설
2	慕廣學 Mu guangxue	森工集團紅石林業局	局長,黨書記	목재수출/가공/가구
3	毛陳居 Mao chenju	森工集團露水河林業分公司	總經理	목재/가구
4	李駿 Li jun	森工集團松江河林業有限公司	總經理	관광/목재가공
5	孫玉斌 Sun yubin	通化鋼鐵集團股份有限公司	總經理	철강
6	李淳南 Li chunnan	吉林省業集團有限責任公司	副總經理	광산/화학
7	單際強 shan jiqiang	吉林省通用機械場	總工程師	자동차부품/液壓油유기
8	李長春 Li changchun	吉林省東風化工有限公司	黨書記	-
9	王炳祥 Wang bingxiang	長春轎車消聲器場	副總經理	자동차부품
10	黃鐵軍 Huang tiejun	吉林省恒利機械製造有限公司	副總經理	자동차부품
11	庄德寶 Zhuang debao	吉林省公主嶺 軸承場	副場長	자동차부품
12	劉忠義 Liu zhongyi	吉林省長山化肥集團	副總經理	화학/고무
13	馬淑文 Ma shuwen	吉林省高新技術產業發展投資擔保有限公司	副總經理	금융/보험
14	吳曉光 Wu xiaoguang	吉林省信託投資公司	監事長	자산신탁
15	郭殿武 Guo dianwu	吉林省物資集團	總經理	물류/기계장비
16	王景相 Wang jingxiang	長春市精密鑄造有限公司	總經理	정밀주조/사형주조/자동차부품
17	鄒平林 Zou pinglin	四平市農豐樂機械製造有限公司	副總經理	옥수수 수확기/탈곡기 자동차부품/석유채굴
18	高中偉 Gao zhongwei	吉林省石油裝備公司	副總經理	설비
19	趙曉坪 Zhao xiaoping	吉林省石育種業有限公司	副總經理	옥수수, 잡곡 생산
20	徐海洲 Xu haizhou	吉林省博來德工貿有限公司	黨支部書記	수출무역
21	高農宇 Gao zhenyu	吉林遠東集團公司	副總經理	상가임대/부동산개발
22	王洪博 Wang hongbo	吉林省中小企業發展局	處長	-
23	司兆光 Si zhaoguang	吉林省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副處長	농산물 수출입중개
24	王云泉 Wang yunquan	吉林省組織部	處長	-

自己開發의 時代를 열자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 21세기 지구상에는 6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중국에는 13억, 한반도에도 7천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사람이다.” 국가나 기업과 같은 조직이 역경이나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많은데 이를 타개하거나 극복할만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이야기는 일본사회에 잘 알려진 구로다 료스이(黒田如水, 일본의 크리스찬 영주의 한사람으로 알려진 장수)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주고받은 말에 필자의 시각을 보탠 말이다. <人才經營>의 저자 히구치 히로타로는 구로다 료스이가 히데요시의 참모로서 중국정벌과 유럽정벌 등에 참가하였으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쪽에 속해 활약한 ‘人物’이었다고 밝히면서 ‘역경의 시대는 인물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人材’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은 여간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구로다 료스이가 한탄했듯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위기, 실업대란, 사회통합, 나아가서 통일문제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잘 해결 해낼 수 있는 지도자적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리더십 빈곤’ 또는 ‘리더십의 위기’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청와대에 칩거하면서 많은 책을 읽는 중에 특히 감명 깊었던 책이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이었다고 한다. 사람은 역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自我省察과 自己開發의 필요성을 절감했지 않았을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IMF 시절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2004년이 저물고 2005년 새해를 맞으면서도 경제적 난국이 좀처럼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그나마도 다행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학습기회를 얻게 하여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 혁신’과 능력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도전하게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 과제로 전개해 나가려는 학습사회 창조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백만을 헤아리는 실업자들이 실업대란의 사회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과 노령화 문제가 소비경제를 추락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더 침울하게 채색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거의 기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은 기업에 대한 국민적 적대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은 나라도 당해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극복의 큰 힘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인간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나 남에게 의존하려하면 자기 속에 잠재한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은 소멸해 버린다. 역경이란 쇠망과 몰락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자신을 잠 깨우는 경중으로 받아들일 때 기회로 다시 오는 법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게리 베커가 말하고 있듯이 21세기는 ‘인간 자본의 시대’ 또는 ‘인간의 시대’이다. 다시 말해 ‘인간산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지금의 경제 위기 또는 역경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거인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The Enterprise of Self>의 저자 보보 오블리가 강조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을 기업화 해야 한다.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연구원과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들이 함께 자기 기업화를 위한 자기개발의 시대를 참되게 열어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성원해주신 독자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05년 새해도 희망과 비전이 가득한 해로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人間)



비통(鼻通)의 신기(神氣)

송인갑 (주)우향알앤디 사장

최한기 선생님을 그리며

“냄새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전에 맡았던 냄새를 증험함으로써 뒤에 맡은 냄새의 좋고 나쁨을 전하여, 저 냄새를 견주어서 이 냄새의 맑고 흐림을 분별한다.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냄새를 능히 맡고 이미 없어진 냄새의 남은 냄새를 맡으며, 그 선악 이해를 마치 음식을 삼키고 토하듯 그 청탁 장단을 음률을 분별하듯 가려낸다.” (최한기 선생의 기측체의(氣測體義) 中 ‘비통’)



내가 해강 최한기(1803~1879)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 알게 된 그의 저서 <기측체의(氣測體義)>를 통해서다. 그 중에서도 4페이지에 불과한 ‘비통’의 글귀를 읽고 난 후 깊은 열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150년 전에 이미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향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냄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최한기

선생님은 비통을 통해 후각에 대한 동양적 사고와 과학을 규명하였으니 그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통이란 후각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아 막힘이 없음을 말한다. 그는 비통의 첫 머리에 ‘코는 기를 통하는 구멍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코가 사람의 근본임을 제시하여 곧 후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최근에 향기 치료법이 보편화되면서 공공장소나 상점, 빌딩 등에 향 공조시스템을 이용한 향기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향기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음이 과학적 실험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 시설에 적절히 향기를 투입하여 사람들의 감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련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한기 선생님은 이미 냄새가 인간의 감성을 좌우하

송인갑 (주)우향알앤디 사장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 경인유통(주) 상무이사 / ORBIT ESTABLISHMENT Co. Ltd Manager(사우디 리아드) / 오마사리프 브랜드 기획 및 발매 / 해외유명향수 런칭(구찌, 아 이그너, 조르지오 비버리힐스 등 24개 브랜드) / 한양대, 서울예대 출강 / P&A 마케팅연구소 소장 / 우향연구소 소장 / 저서 : <향수, 영혼의 예술>, <냄새, 우리의 향을 찾아서>, <향수-The of perfume>

는 환경적 요인임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갯벌에서 성장한 자는 바다의 짠맛에 물들어 젖었음으로 조금 짠 바람에서는 그 짠맛을 알지 못하며, 산장에서 성장한 자는 맑은 아지랑이 가운데 젖어 있으므로 조금 흐린 바람이라도 그 흐림을 쉽게 깨닫는다...”

서양의 향수가 우리 땅을 뒤덮고, 이름 모를 향기가 우리의 향 문화가 상실된 거리에 쏟아지는걸 보면서 우리에게 최한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에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의 향기

서양의 향 문화가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사람에게 향기를 입혀 새로운 냄새로 발전시키는 형태라 한다면, 동양의 향 문화는 장자의 사상처럼 정신적인 내면을 중시 여겨서 자연 그대로의 향을 사용하여 사람과 향이 하나의 공간에서 각기 존재하며 서로 노니는 냄새를 원하였던 것이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그의 소설 <향수>를 통하여 18세기 파리의 향과 향료들을 묘사했다. 서양에서는 그들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향을 추출해 조향의 과정을 거쳐 알코올을 첨가한 이 세상에 없던 “향수”라는 상품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향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걸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 갔다. 또한 일찍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진 서구에서는 육식 중심의 식문화와 단혀진 주택 공간 때문에 몸이나 주변환경이 늘 좋지 못한 냄새로 가득해 인위적인 향으로 좋은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경 중심의 트인 공간과 초식 중심의 식문화로 인하여 굳이 인위적인 좋은 향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늘 몸이나 집 가까이 자연의 냄새가 있었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향을 즐겼으며, 사람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향기에 있어서 동서양은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언제나 꽃과 풀과 나무가 향기를 뿜었으며 황토와 짚, 꽃감이 집안에 널려 있었던 것이다. 이슬과 함께 묻어 나오는 새벽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일어나 논과 밭에 있는 작물의 냄새를 내내 맡았다. 야나들은 야산에서 쑥과 약초를 캐고, 솔가지를 꺾어 노을이 질 무렵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을 때면 온 마을에 솔가지와 나무의 타는 냄새가 맛있는 저녁 식사시간임을 알렸다. 그리고 누군가 아픈 이가 있으면 약을 다려 그 냄새가 집안 가득히 퍼어 집에 환자가 있음을 금방 알게 해주었다. 때로는 향기 있는 꽃과 나무를 말려 처마 밑에 걸어두기도 하고, 장롱 깊은 곳에 삼베로 꼭꼭 싸서 넣어 두기도 했는데, 그것들에서 풍기는 우리네 향기는 바로 삶이며, 생활의 활력소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향기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산

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잊혀지거나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서구의 향기가 우리의 땅을 뒤덮기 시작했다. 물론 서양의 향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무절제하게 유입됨으로써 진정 우리 고유의 향 문화를 잃어버리고, 서구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냄새에 빠져 후각이 점령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1C 꿈의 산업 ‘향’

오감 중 아직 미개척 분야인 후각의 세계는 21C에 가장 관심과 가능성을 부여받은 분야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컨텐츠로써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향기 나는 섬유, 빌딩 등 각종 영업장에 향기를 분사하여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매장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천연 향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라고 불리는 대체의학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컴퓨터를 보면서 각 화면에 있는 사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제 피자나 햄버거의 향기를 맡으면서 주문하고, 니스의 바다나 에베레스트를 직접 가지 않고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향기는 21C 어느 곳에서든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향 산업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식물학, 화학, 조향사, 문화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국내에 자생하는 향 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 향에 대한 체계적 개발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향 역사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우리의 향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향의 세계에 입문한지도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녹차와 연유자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았고 일본과 같이 향마을 조성계획과 향 테마파크, 향수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중이다. 때론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픈 생각도 많았지만 우리의 향기를 찾아 세계로 보내는 일은 내 인생이라 생각되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안성시에서 포도향기 박물관 건립을 내게 맡겼고, 개발된 제품도 반응이 좋은 편이라 그나마 위안이 된다.

끝으로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의 향기와 향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것을 다시 찾아서 말이다. 새해에는 많은 운전자들을 위해 줄음방지용 향기를 세상에 내 놓을까 한다. **人間**

회원소식



• **곽창선 (주)대양파이프 사장**은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관하는 2004년도 유공자문위원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 노화방지클리닉으로 본 연구원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였던 라끄리닉 드 파리의 **김명신 원장**은 압구정점에 이어 12월 20일 신라호텔 3층에 새롭게 병원을 개원하였다.

• **(주)성도GL 김상래 사장**은 지난 12월 17일 창립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래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인 "놀자, 과학야" 행사를 후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뜻을 고객과 함께 나누고자 고객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고객초청 행사를 진행하였다.



《 안 내 》

- 일 정 : 2004년12월16일~ 2005년 1월 16일
- 입장시간 : 오전10시 ~ 오후 7시
- 장 소 : COEX 1층 태평양 홀

• **부원광학(사장 박춘봉)**은 2004년 12월 13일 오후 7시 40분 KTV "경제 그리고 사람이야기"프로그램에 "21세기 광산업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방영되었다.

• **Big Dream&Success 공한수 사장**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중원초등학교 6학년 약 250명을 대상으로 "종이위에 쓴 목표의 위력"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전 대한주정판매(주) 감사 **최동현**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변경주소 : 서초구 서초3동 1497-16
- 전 화 : 02-521-9454 직통 02-597-2943
- 팩 스 : 02-597-2945

• **이채욱 GE코리아 사장**은 12월 30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부처 관리직 공무원들에게 GE의 혁신사례를 강의한 것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교육원 박명재 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이길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지난 12월 11일 숙명여대에서 한국도요자동차와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한일경상학회 총회에서 제4회 한일경제인대상을 수상하였다. 이길현 회장은 지난 30년간 삼성저팬 대표이사를 비롯해 일본정부 대외경제자문특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일친선협회 부회장을 맡는 등 그동안 대일경제교류의 창구역할을 해온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광동제약(대표 최수부 회장)**의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04년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제4그룹(인목회, 회장 김정배 / (주)수성 사장/ 간사 한종덕, 통인안전보관(주) 부사장)**은 지난 2004년 12월 21일 제 37차 정기모임 겸 송년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주)광인 김용희 회장님과 하이젤(주) 권희설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규회원

안민호 선진개발(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31-51 수정빌딩 3층
- 전 화 : 054-372-6611
- 팩 스 : 054-372-4646
- 추천인 : 최석태 M&N 홀딩스(주) 부회장



지광윤 새한신용정보(주) 회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2 흥은빌딩 8, 10층
- 전 화 : 02-2008-7800
- 팩 스 : 02-3453-9545
- 추천인 : 박호건 (주)동신선박에이전시 부사장



송영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준회원)

- 주 소 :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 화 : 02-940-5670
- 팩 스 : 02-942-1697
- 추천인 : 권혁조 광운대학교 교수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비틀맵	김은영 대표	(1월 1일)
정보실업	오성호 대표	(1월 3일)
신일금속센터(주)	김종엽 사장	(1월 8일)
(주)E&C정보기술	방기봉 회장	(1월 8일)
(주)평안산업	곽창근 대표이사	(1월 9일)
(주)제니엘	박종철 회장	(1월 15일)
코리아홈쇼핑	박인규 대표이사	(1월 19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경찰공제회	김명수 이사	(1월 24일)
청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신구종합건설(주)	김성귀 회장	(1월 29일)
(주)광인	김용희 회장	(1월 30일)

삼가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대한해운 이맹기 명예회장(제6대 해군참모총장)께서 지난 11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이맹기 회원님은 1993년부터 본 연구원의 법인회원과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 합니다.



연락처 변경

· 삼익LMS(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는 서울사무소(영업본부)를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금강타워 16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6층
· 전 화 : 02-3454-0811

· 백영진 (주)한국아쿠르트 연구소장은 2005년부터 본사에서 상임감사로 근무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연락처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0 (주)한국아쿠르트 10층 임원실
· 전 화 : 02-3449-6607
· 팩 스 : 02-3449-6660
· 이메일 : yjbaek@yakult.co.kr

♣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장만기 본 연구원 회장은 12월 19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문정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이길현 전 신라호텔 사장,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정지환 시민의 신문 편집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366회, 137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사로 초청됐던 쓰에마쓰 요시노리 의원과 백진훈 의원을 비롯해 나카가와 마사하루, 마시코 데루히코, 나카시마 아키히사, 고바야시 치요미, 조에 나카노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두 나라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AU(Asian Union)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연구원소식

♣ 2004 송년의 밤을 마치며



▶ 오제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이 송년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회원들간의 친목과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전야제로써 마련한 송년의 밤이 28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늘 변치않는 배움에의 의지와 열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신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님, 김태인 삼부해운 회장님, 남기현 한국NGO지도자총연합 총재님이 '올해의 회원상'을 수상하셨으며, 인간개발연구원의 비전을 함께 하며 물심양면으로 소모임을 운영해 오신 이두호 한국지금증개 사장님, 김상래 성도GL 사장님께서 '올해의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찬과 후원으로 행사를 더욱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아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후원과 협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소속	내용
김상희	웰코스 회장	남성용화장품 40세트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남성용화장품 20세트
김영덕	삼림식품 사장	케익 20개
박인규	코리아홀쇼핑 사장	피자팬 20개
박종주	KANNE BNG(주) 부사장	Brottrunk 독일제 유산균제품 10박스
박찬수	사인빌리조트 대표	속박권 2매
배상연	배상연주가 대표이사	vip 키트 280개(200기념품 80테이블용)
손경식	해청미술관 관장	서예 1점
이재욱	GE코리아 대표이사	디지털카메라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포트폴리오 촬영권 2매(150만원 상당)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바디용품 10세트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	실크이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가습기 3점 / 청소기 3점
윤화진	센뷰테크놀로지 회장	원목화백 그림1점
장찬기	(목)인전실버타운 회장	심전대보탕 5세트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휘호 2점
조천재	한국불랜차드건설링그룹(주) 대표이사	책 150권
최미영	SK여행사 대표	제주비행기티켓 2매
최창락	인간개발연구원 이사장	김의영교수도예작품 1점
홍승국	에버그린 사장	탁상용고급시계 190점
김서기	태창가족(주) 사장	현금 30만원
김석기	관동실업(주) 사장	현금 30만원
김영재	한신전선(주) 사장	현금 30만원
김용정	와이제이교역(주) 회장	현금 30만원
김재용	삼미건설 회장	현금 30만원
김정철	정림건축(주) 회장	현금 50만원
김태인	삼부해운(주) 회장	현금 30만원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현금 30만원
박성훈	모간(주) 사장	현금 30만원
심갑보	삼인LMS 부회장	현금 50만원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	현금 50만원
오성호	점보실업(주) 사장	현금 30만원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	현금 30만원
윤석영	심파페인트 부사장	현금 30만원
이 심	인경회 회장	현금 30만원
이용국	신원헬트공(주) 회장	현금 50만원
이재선	(주)서등 회장	현금 30만원
이재용	세람상호저축은행 사장	현금 30만원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현금 30만원
황석희	이중3그룹	현금 100만원



▶ 살롱르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은 공연 / 조나단 매직게이트 원장의 마술쇼 / 공로상 시상식 장면

♣ 장만기 회장 서울대 경영인대상 수상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은 제5회 서울대 경영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만기 회장은 조찬연구회를 통해 한국기업과 경제를 세계화 선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폴 J. 마이어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 정착화시켜 인간존중의 미래경제사회를 세워가는데 공헌하였고, 사랑의 책나누기운동, 녹색

교통운동,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의 민주화 세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양병무 원장, 주식회사 장성군 집필중

본원 양병무 원장은 전남 장성군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의 지원으로 10년째 실시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장성군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다룬 <주식회사 장성군> 책을 집필중에 있으며 책의 마무리를 위해 장성군을 방문하여 현장확인하고 함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소식

• 울산북구 「북구주민 자치대학」은 지난 12월 8일에 제16회로 제2기 북구주민 자치대학 수료식을 열었으며,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 후 이상범 구청장과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강생들에게 수료증 및 시상 수여가 진행되었다.

• 거제시 「거제시민 자치대학」은 지난 12월 17일에 거제시민 자치대학 수료식을 열었다. 제213회 거제시민 자치대학은 유종하 사이버 MBA 회장, 前 외무부 장관을 초청, '부시 2기 출범과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김한겸 시장과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강생들에게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다.

• 제천시「푸른 제천 아카데미」는 지난 12월 21일에 수료식을 가졌으며, 제6회 푸른 제천 아카데미에는 이익용 사보문화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올 한해의 수강생들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가 이루어졌다.

• 장성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최우수상'



장성군(군수 김홍식)은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토 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관한『지속가능한 도시대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화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친환경, 주민참여, 도시관리, 정보화녹색교통, 문화부문』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분야별로 저명한 대학교수, 전문가, 주민참여연대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엄격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우수기관, 부문별우수기관, 특별상으로 선정한다.

장성군은 2000년 2001년은 특별상, 2003년은 주민참여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황룡강생태학습장 조성, 건축패션화사업, 수해상습지개선, 각종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3개 사업이 6개부문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

SK UTO인들을 위한 Life Planning Event

본사에서는 SK UTO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UTO 챌린저 테마정도의 하나로 2005년 새로운 한 해를 LMI와 함께 준비해보는 Life Planning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05년 1월 15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삼성동 아셈타워 7층 이지엠닷컴 교육장
- 인원 : UTO 챌린저 테마정도 이벤트 당첨자 40명
- 진행 : 온앤프로&한국엘엠아이

2,30대 젊은 비즈니스맨들만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UTO와 함께 삶에 대한 열정을 느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동정

1. 제15회 수료자 모임

- 일시 : 2005년 1월 10일(월) 오후 6시
- 장소 : LMI 명동지사 교육장
- 강사 : 추후공지
- 주제 : “기본에 충실하자”

2. 시애틀 웰빙과 함께 하는 “자연건강법 실기연수”

- 일시 : 2005년 1월 8일(토) 오후 3시~5시 30분
- 장소 : 시애틀 웰빙 (선릉역 소재, Tel.508-0779)
- 인원 : 선착순 20명
- 비용 : 추후공지
- 내용 : 생로병사의 비밀 / 인체의 신비 자연 치유력 / 자연치유력 상실 원인 / 자연치유력 회복 방법 / 점혈법 실기(불면증, 두통, 시력감퇴, 경추디스크, 오십견 증상 치유) / 수료증 발급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리더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조직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 석세스플래너 포함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to.co.kr

노화예방을 위한 여정

전용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동경대를 방문한 본 연구원 회원들

창립 30주년을 맞는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모든 사람 내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개인의 행복, 국가번영, 인류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은 일본 내 800만부 판매라는 기록과 함께 국내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내뇌혁명>의 저자이자 건강요법의 최고 권위자인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 박사와의 협력 하에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노령화 시대를 맞는 22세기의 선진의료기술을 체험하고 향후 한국의 노인요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지난 12월 5일~7일 동안 일본현지를 방문하는 회원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금번 행사에 참여하셨던 전용찬 회원의 기고를 통해 22세기의 노령화 시대를 맞아 선진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일본 방문기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고 싶어 당시 제주도에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경우 누구나 제주도를 경위하기를 바라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되어있다.

이번 일본여행도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말 바쁜 일정을 마다하고 장만기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이 12월 5일~7일 일정으로 일본 전원도시 후생병원을 찾아 노화예방을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12월 5일, 일요일 새벽 짐을 꾸려 12시 30분경 동경 하네다공항에 도착하니 하늘은 맑고 깨끗한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우릴 초청해 준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 원장께서 직접 영접해 주었다. 좁은 나라 일본 동경은 태평양 넓은 바다를 힘껏 매립하여 바다 위에 냉동 창고도 짓고 사무실과 화력발전소 등을 만들기도 하여 자연을 극복

하는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밀조밀 최고의 낙원을 만들고 있었다.

다듬어진 고속도로를 한시간여 달리다가 오후 1시 30분 경 일본의 명문이자 동양의 최고학부인 동경대학에 도착하였다. 노란 은행나무 잎이 수북히 쌓인 길목에서 150년을 자랑하는 고풍스러운 건물사이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옛날을 회상케 하는 시계탑을 보며 환담하기도 하였다.

동경대학 安田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매워 등록하였는데 우리일행은 2층 중앙에 안내되었다. 동 대학 부속병원장이 발췌 강의를 시작했는데 22세기 의료체계의 역할과 전망을 짚어가면서 다음 세기 의학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다. 1876년 인천개항 이후 일본의 한국침략 강점기를 넘어 열심히 뒤쫓아간 우리의 입장에서 최근 일본이나 한국이 엇비슷하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일본이 우리와는 달리 잃어버린 10년을 교훈 삼아 다음 세기에서 인간의 건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금세기 질병 해결에 쫓겨있는 우리에게 비해 상당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뇌혁명>이란 책을 발간하여 800만부나 판매하고 가압운동에 성공한 하루야마 시게오 원장도 자기 모교에

전용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944년 생 / 경희대 법학과 졸업 / 경희대 법학박사 / 강원도 강릉경찰서 서장 / 서울 청량리경찰서 서장 /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 / 강원지방경찰청 청장 /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 경찰청 총무과 치안정감 / 경찰공제회 감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경우문에 회장 / 수필집 - 무궁화동산에 핀 만산, 아침풍경, 감자꽃 향기 / 시집 - 벼랑 위의 깃발, 영혼의 흔적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진지하게 메모하면서 강의 듣고 있었다. 가압발명가인 佐藤義昭 원장의 건강한 모습과 그의 특강에서 일본의 미래가 꿈틀거렸고, 순환기 심장과 고령자 의료 행위와 가압훈련의 유효성 등 여러 교수들의 연구발표에서 참석한 일본의 많은 노인들이 환한 웃음 속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았다.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일본 천황이 있는 거리를 지나 초저녁 전깃불이 반짝이는 大和市 전원도시 후생병원에 도착하였다. 부부동반으로 오신 네 분의 일행도 1인 1실의 원칙에 허전하지 아쉬운지는 알 수 없으나 헤어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깨끗한 침실, 목욕탕, 화장실, 옷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병원 총무과장을 비롯한 젊은 아가씨들이 동원되어 우리 일행들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에서부터 잠자리, 건강관리소에서 일련의 과정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며 극진히 대해 주었다.

12월 6일 월요일이다. 오전에 하루야마 시게오 원장의 특강과 그 분이 성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병동, 건강진료소, 웰빙병동 견학과 장래 7,000여명에 새로 조성할 종합의료센터 공원부지견학, 그리고 오후에 가압훈련을 비롯한 웰빙병동에서의 각종 체험을 하게 되었다. 금년 9월에 개원한 최신식 환경과 시설을 자랑하며 670여명의 회원모집이 성사된 좋은 공간에 안내되어 “신뇌내혁명과 노화의 수명”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이어졌다.

하루야마 시게오 원장은 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착각시켜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뇌에서 분비되는 PEA라는 호르몬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데, 눈빛이 빛나고 활력이 있는 모습은 양질의 아미노산 PEA호르몬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중년부부를 중심으로 배용준의 한류에 취청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화 속의 멋진 애인과 연애도 하고 그를 좋아하는 마음속에서 뇌의 모의체험이 이루어져 양질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191개의 아미노산 덩어리 중 50%는 입으로 섭취되는 좋은 음식과 편안한 마음, 그리고 뇌의 착각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테로미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양초에 불이 켜진 촛불과 같은 것인데 60세 이상의 고령이 되고 테로미아가 우리 인체에서 1/3정도 남아 있을 때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촛불이 빨리 타고 없어져 그것이 곧 당뇨, 고혈압,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암환자의 88%가 조기 발견되어 불치병 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평균수명이 80세로 늘었는데 한국도 이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60조개의 세포 중 테로미아 호르몬, 성장호르몬, 유사호르몬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테로미아 호르몬을 발견하고 그 호르몬을 오래도록 생성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



▶ 본 연구원 회원들은 일본 방문 첫번째 일정으로 동경대를 방문하여 22세기 의학과 관련한 강연을 들었다.

는 것이 현대의학의 숙제라고 한다. 세계에서 어떤 유명한 제약회사라 해도 사람 제약회사를 따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화의 비밀을 갖고 있는 테로미아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압훈련을 통해 뇌를 착각시켜서 100배의 운동효과를 얻어 젊어질 수 있다고 한다.

권위있는 의사의 처방으로 빵가루를 수면제로 만들어 효력을 보는 것이 위약효과(僞藥效果)라고 하는데 가압운동으로 뇌의 기능을 속여 우울증이나 고혈압, 당뇨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침으로 전신마취를 시킨다거나 위약효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가압운동으로 뇌의 습관을 변경시키는 것이 모두 뇌를 착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호텔티의 마스터키와 같은 마스터 호르몬인데 갱년기 장애, 남성 발기부전, 여성난소 호르몬 부족도 간편한 가압운동으로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값싸게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장 자신의 꿈이요, 목표라고 한다.

본인은 80세의 고령으로 한국에서 웰코스 화장품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김상희 회장께서 10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120세까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본인의 중심과제이며 이미 이 실험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에 관한 정의는 첫째, 신체적 건강으로 근육과 뇌의 육성이 잘 되어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정신적 건강으로 오감의 반응이 잘 작동하고 판단능력이 정상인 사람이며, 셋째는 사회적 건강으로 인간 뇌의 ‘평화’, ‘전쟁’ 등 언어와 말, 정서가 올바른 사람으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말한다. 마지막 넷째는 명상적 건강으로 지·정·의가 올바르게 갖추어진 지성인의 건강 등 모두를 소유해야 한다고 한다. 目·鼻·耳·口·身(피부) 등 五感 腦를 발달시키는 건강요법도 현대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 참석하신 인간개발연구원 소속 20명은 물론 본인의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본인의 의지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의욕적인 희망을 전하고 있다.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사람을 보냈듯이 노화에 방을 위해 3일 동안 일본 방문을 한 것은 금년 들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이 글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길 기대해본다. (人間)

세원그룹 LMI 리더십 임원교육을 마치면서

사람 이 변할 수 있을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면에 교육학자들은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실제로 LMI 리더십 과정을 통해 임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5월부터 우량기업인 세원그룹의 임원들을 상대로 리더십 과정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MI 리더십 과정은 16주 동안 1주일에 일회씩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기간이 16주이니까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2시간씩 16주면 총 소요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하다. 4일만 하면 되는 교육을 왜 4개월 동안에 걸쳐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단기간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사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0세가 넘는 임원들에게 누가 일일이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놀라운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LMI 교육은 미국의 폴 마이어(Paul J. Meyer) 회장이 개발한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다만 성장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영향 그리고 실수와 실패의 경험 때문에 꿈은 점점 사라지고 분재된 소나무처럼 정신적 난쟁이로 전락했을 뿐이다. 때문에 교육의 핵심은 자신에게 엄청난 잠재능력이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원그룹의 임원1기 교육 참가자는 총 7명으로 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3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직급 차이로 다소 어색했으나 2주 정도 지나면서 그 벽은 점점 얇어지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매주 주간목표를 개인목표와 업무목표로 자신이 직접 정하고 달성여부를 학습을 시작하면서 확인한다. 이어 해당 단원에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2~3명이 한 조가 되어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행동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적는 게 많다는 점이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에서 '적자생존' 과정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교육기간 중 다루어진 내용은 꿈의 목록 작성, 자발적 동기부여 방법, 태도와 습관을 고치는 비결, 목표설정표 작성, 사명선언서 만들기, 시간관리 요령, 커뮤니케이션과 경청기술, 조직관리 기법, 감사리스트 작성 등이다. 이 과정의 강점은 실천을 위한 목표설정표와 행동계획서에 있다. 하나도 실천, 둘도 실천이다. 오랜 기간 교육을 하는 것도 바로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달성하는 것을 생활화함으로써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4개월 정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태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는 개인과 조직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교육에 참가한 세원E&T의 박현강 사장은 7주 째 되던 날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 보았으나 여느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이 교육은 나이가 젊을수록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임원1기 교육이 끝나면 바로 2기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 본사와 창원 공장의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에게도 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1990년 LMI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보급해 왔다. 초창기에 GE, 미래산업, 광주은행 등 인재중시의 경영철학을 지향하는 CEO들이 LMI의 독특한 교육방법에 동의하고 LMI 리더십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의 변화 즉 태도변화를 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한국기업에 제시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체 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기업체교육을 다시금 부활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세원그룹의 교육에 임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감동시키면 교육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 내려갈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 세원그룹에서 성공하면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과 다른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는 신념도 생겨났다.

임원1기 교육이 끝나자 곧바로 8월말에 임원2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상무와 이사 9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는데 이미 선배들로부터 교육의 효과를 전해들은 터라 이들은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달랐다. 동시에 팀장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과정까지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중간관리자 교육은 다른 퍼시리테이터가 진행하고 있다.

임원2기 수료식 날 참가소감문을 들으면서 벽찬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교육의 보람이 이런 것인가.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정과 조직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증언하며 “5년 전에만이 교육을 받았더라면...”하면서 아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00개 이상의 감사리스트를 작성한 임원이 있는가 하면 교육내용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임원도 있었다. 요즘은 나는 세원그룹의 임원과 중간관리자 교육에서 오갔던 주옥같은 이야기와 성과들을 모아 ‘세원그룹 LMI 리더십 종합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완성하여 회사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할 계획이다. 임원1기생으로 교육에 참여했던 세원화성 윤경일 사장의 참가소감문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소감문을 쓰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참 많이 변해 있구나’ 하는 생각이다. 나의 꿈, 비전, 가치기준, 사명, 목적, 목표 등을 글로 표현해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내가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살아왔는지 반성이 되기도 했다. 교육기간 중 나는 학창시절부터 길들여진 흡연 습관을 금연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달성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고, 2시간 30분의 귀중한 아침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간을 운동, 독서, 공부 등에 활용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하직원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어찌나 기뻐하던지 그야말로 감격하는 수준이었다. 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달라져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교육의 기회가 좀더 일찍 주어졌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크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학습할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임성욱 그룹 회장님과 LMI의 장만기 회장님, 엄경애 사장님, 양병무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人間**

고독감과 고독력

겨울 밤이 깊으면 언뜻 고독이 스쳐 가는 화려한 순간이 있습니다. 길게, 짧게. 그런가 하면 고독은 또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 홀로라는 느낌은 자살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독의 원천은 인간의 군집욕에서 비롯됩니다. 식욕, 성욕과 함께 3대 본능의 하나입니다. 고독이 있기에 사랑도 하고 이웃을, 그리고 친구를 만들게도 됩니다. 고독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사이를 이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잘 안될 때 우리는 깊은 고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좌절감, 배신감, 분노, 자책, 자기 비하, 열등감, 절망... 고독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깊은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독이 철학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력(孤獨力)은 이러한 고독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감상적인 고독감(孤獨感, loneliness)과는 달리 고독력은 영어에서 'Solitude'로 씁니다. 고독감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라면 고독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고독력은 혼자일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를 일부러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고독감이 느껴지면 고독력은 힘입니다.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최근 발간된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을 읽어보노라면 고독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이름이 남은 위인들은 하나같이 고독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 의학적으로 말하면 고독력 지수가 높을수록 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과정엔 고독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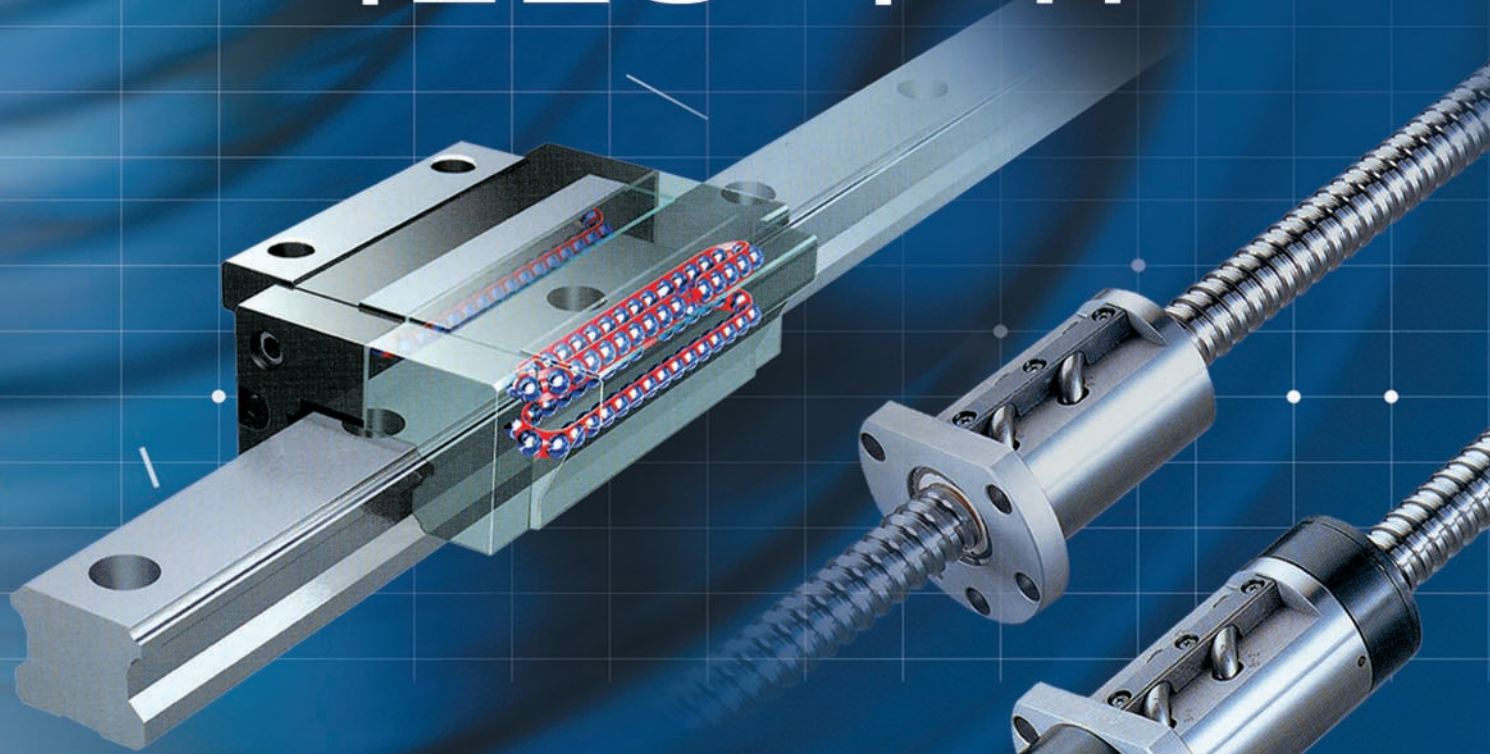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고통과 인내와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홀로 버텨 낼 수 있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가사의는 이러한 인고의 과정을 이들 위인들은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학적인 면도 없진 않습니다.

범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홀로 사는 즐거움”이란 경지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독력은 위인의 몫만은 아닙니다. 학교 공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 공부를 해도 결국 내 머릿속에 익혀야 하는 건 자기 혼자만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 점에서 회사도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조직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외로운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도, 낮은 사람은 모여서 근무를 하지만 중역으로 올라갈수록 뒤로 떨어져 앉게 되고 사장은 혼자 독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통령이 텅 빈 넓은 방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론이 분분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적마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결단을 혼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모들의 의견도 듣겠지요. 하지만 최후의 결단은 대통령의 외로운 몫입니다.

고독력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힘입니다. 산고의 고통은 힘겨운 과정, 이를 못 이겨 때론 좌절, 포기, 미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완성된 순간, 그 희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정상(頂上)의 환희는 그간의 모든 고통을 단숨에 날려 버리고 형언할 수 없는 성취에의 보람을 안겨줍니다. 자부와 긍지로 넘쳐나게 해 줍니다. 이것이 고독력이 가져다주는 지상의 경험이요 보수인 것입니다.

긴 겨울밤. 고독감에 올 것이냐, 창조를 위한 가슴 부푼 순간이 될 것인가. 이걸 당신의 선택입니다. **人間**

무한제어 메카니즘 직선운동 시스템



SAMICK
THK
LM SYSTEM

1

삼익LMS(주)정신은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 *Hot-Line* 입니다.

<http://www.samicklms.co.kr>

항상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삼익!

삼익은 전 생산공정 하나 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최첨단 신기술로 귀사의 꿈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금강타워 16층)
TEL : (02)3454-0811 FAX : (02)3454-0792

- 본 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76번지 TEL : (053)581-9931 FAX : (053)581-8272
- 수원영업소 : (031)899-9500 FAX : (031)286-2535
- 구미영업소 : (054)471-2761 FAX : (054)471-2763
- 창원영업부 : (055)277-8362 FAX : (055)277-8361
- 천안영업소 : (041)621-0170 FAX : (041)621-0171
- 대전영업소 : (042)934-2308 FAX : (042)934-2307
- 부산영업소 : (051)319-4593 FAX : (051)319-4592
- 인천영업소 : (032)812-9354 FAX : (032)812-9352
- 대구영업부 : (053)581-3421 FAX : (053)581-3420
- 광주영업소 : (062)251-4782 FAX : (062)268-8494
- 울산영업소 : (052)273-9941 FAX : (052)273-9820

딸에 때문에...
"딸 둔 집에선 룰루가 필수입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남편 때문에...
"깔끔한 남편은 아내가 챙겨줘야죠!"

온가족이
쿨쿨농수세요!

룰루비데 (BA03-A)



닫지 말고 씻자 —
Looloo
룰루비데

※문의처: 1588-5200